내일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2019 08 Vol. 532

피부 속 건강 챙기듯 직원 행복으로 회사 조직력 탄탄히 키우는 아이소이

Contents

테마 이야기 :
알바생의 뜨거운 열정을 격려하며
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06 **따뜻한 말 한마디**
알바생, 우리 노동현장의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10 **맞춤 솔루션**
알바 시작 전 알아둬야 할 필수 알바 상식

14 **人 스토리**
책상 앞을 떠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김은비, 배보림 님

노동 현장과 정책 이야기
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18 **중장년 희망일터**
일터에서 삶의 보람 다시 찾은 황주미 님

22 **청년 불패**
대학일자리센터와 함께 취업 성공한 김형모 님
K-MOVE로 뉴욕 기업 입성한 김송애 님

26 **기술의 힘**
매일을 첫날처럼 35년 외길 달려온
㈜엠이티 김영삼 대표

30 **정책 돋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4 **정책 수첩**
취업시장에서 인기 많은 국가기술자격증 20선

38 **잡툰**
신입사원 쓰러지다!

40 **고용노동 뉴스**

상생협력, 가치창출,
미래성장 이야기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46 **같이의 가치**
문화예술로 함께 즐거운 세상을 꿈꾸는
㈜명랑캠페인

50 **해피 투게더**
임금체계 개선이 조직문화를 바꾸다
한라신용협동조합

54 **하우투 워라밸**
피부 속 건강 챙기듯 직원 행복 챙기는 아이소이

58 **노사형통**
노(勞)와 사(使) 소통의 하모니를 함께 그리다!
㈜KB국민카드

62 **일자리 가이드**
취업·일자리 박람회

64 **내일 직업 사전**
사업서비스 분야 新직업

68 **SOS 고민 상담소**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연장수당 할증 적용 外

여가생활 이야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70 **옛 직업을 찾아서**
시민과 역사를 싣고 달린 전차운전수

72 **직장인 에너지 충전소**
여름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74 **동의業보감**
직업성 피부질환

76 **스마트 재테크**
휴가철 여행자보험 제대로 들기

78 **내일스타그램**
여름휴가의 추억 함께 나눠요!

82 **독자 마당**

고용노동부 소식지 2019 8월호 <내일>
통권 강남 라00389(통권 532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이재갑 **편집위원장** 김덕호(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77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제작 큐라인(02-2279-2209) www.qline.co.kr

독자 맞춤 칼럼 이럴 땐, 이렇게 읽어보세요!

내일

당당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은 알바생이라면?

우리사회에서 알바생은 불안정한 노동자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노동의 가치마저 가벼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정당한 요구로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조언합니다.

오랜 경력단절로 포기한 재취업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중장년 희망일터'를 통해 경력단절을 청산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35년여를 경력단절로 살아온 후 우연히 지역 소식지의 중장년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터로 돌아온 사례로 희망을 가져보세요.

문화예술로 모두가 함께 즐거운 세상을 꿈꾼다면?

사회적 편견에 갇힌 이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기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의 가치'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2019년 8월 이야기

여름만큼 뜨거운 청춘들의 열정을 응원하며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방학 중에도 쉴 틈 없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알바는 꿈을 탐색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열정으로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청춘들의 시간이 헛되어서는 안 될 말이지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에 뜨거운 여름이 가치 있듯
청춘들의 땀과 열정이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뜨거운 여름을 응원해 주세요.

알바생, 우리 노동현장의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독일어 '아르바이트(Arbeit)'를 줄여서 표현한 '알바'는 노동, 일, 업적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알바생은 노동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라는 원래 뜻과는 달리 우리사회에서는 단순업무, 임시업무, 단시간업무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그 노동의 가치마저 가볍게 취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현장에서 정당한 요구로 당당히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사회 전반의 노동인권의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글 이경석(청소년근로권익센터 부센터장)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이경석 부센터장의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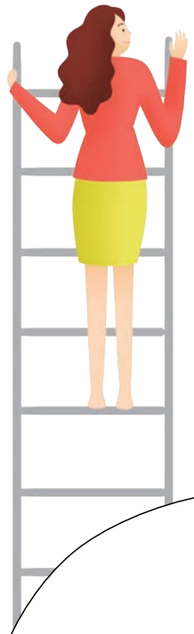
알바생 5명 중 2명이 부당대우 경험

2018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13~24세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48.7%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두 명 중 한 명은 알바를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생계가 아닌 용돈벌이 정도로 치부되어 무시되고 경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 알바천국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알바생 5명 중 2명이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 폭언, 욕설, 성희롱, 산업재해 미처리 등 그 경우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부당대우에 노출되는 경우 알바생의 60%정도가 '그냥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었다'라고 대답한 통계도 있습니다.

알바생들도
노동인권이 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등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내용들입니다. 남녀노소, 비정규직, 정규직과 상관없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에만 해당하면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 본인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당당한 노동시장의 주체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서 이들의 노동을 천시하거나 법률보다 하회한 근로조건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노동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 주눅 들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일 시작 전 챙기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나의 근로계약기간이 얼마나 되고,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그에 따른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중요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그리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근로자에게 없는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사건을 포기하거나 정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꼼꼼히 챙기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을 권리침해 행위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보통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첫째, 최초 채용공고를 캡처해 놓는다(요즘 채용공고는 근로조건에 대한 기본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매일 출퇴근한 시간을 달력이나 휴대폰에 기록해 놓는다(출퇴근기록이 안 되어있더라도 사업장 출퇴근 시 교통카드를 찍었다면 간접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금은 반드시 통장으로 받는다.

넷째, 사용자에게 카톡 또는 문자, 전화통화 녹음으로 계약기간, 시급,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되물어서 보관해 놓는다.

이경석 부센터장은 국가공인 노무사로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부센터장을 비롯해 노동분쟁해결센터 센터장 등을 맡아 우리사회 노동 현장의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노동관계법령, 사회초년생을 위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노동인권교육 강의 등을 해오고 있다.

알바 시작 전 알아둬야 할 필수 알바 상식

알바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알아보기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시장도 뜨거워졌습니다. 알바를 구하려는 학생, 알바생을 뽑으려는 사업주가 서로서로 바쁘게 면접을 진행해 벌써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계약 사항을 잘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바 전 어떤 것들을 알고 챙겨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정리 편집부

안전하고 명료한 계약 사항 공유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받기

Q _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꼭 나눠가져야 하나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시간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나 5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이용자와 알바생이 각각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자와 이용자가 서로 협의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상호 확인하였다는 증서이기 때문입니다. 상호 약속한 노동 시간과 휴게 시간, 보장하는 휴일,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과 조건 등이 들어갑니다.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_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게 불리한 사항을 적게 되면 어쩌죠?

알바 근로계약서의 모든 사항은 근로기준법 아래 있으므로 부당한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용자의 언급이 없더라고 알바를 시작하기 전 꼭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상호 교부한 후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알바 노동자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알아보기

Q _ 주 15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일간의 근로 일수를 모두 채워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받는 돈을 말합니다. 즉, 주 15시간을 일했다면 받을 수 있지요. 주휴수당은 쉽게 주 5일 기준으로 하루치 급여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주5일인 사업장에서 시급 1만원으로 하루 6시간씩 주5일을 근로한 경우(주 총30시간)을 '6(일일 근로 시간)×10,000(시급)=6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주 동안 알바를 했다면 총 24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_ 알바가 끝난 지 2주가 다 돼가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퇴직 이후 14일이 넘도록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필요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도 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만24세 이하의 학생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들이(만24세 이하 및 대학생) 노동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사건 해결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들을 무료로 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1644-3119)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검색하면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더 알려주고 싶은 알바 관련 TMI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활용하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최저임금을 확인해보세요.

Q _ 알바 관련한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❶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만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연차휴가, 주 40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❷ 일정 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 도중 휴게 시간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❸ 1년 미만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을 부여받습니다.

❹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❺ 2019년 8월 현재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업종,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데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직 제외).

* 단, 방학 기간에만 하는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감액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는 감액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책상 앞을 떠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김은비, 배보림 님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두 학생들이 있습니다. 각각 예술학, 의상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은비, 배보림 학생입니다. 방학 동안 잠시 하는 알바지만 이 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과 관심사를 함께 발견하고 싶다는 야무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두 학생을 만나봅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전공 관련 알바, 알찬 여름 기대

쏟아진 햇볕이 아스팔트를 달구는 여름 한 가운데, 울창한 수풀이 우거진 서울월드컵공원 하늘공원 옆으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으로 이곳에서 약 한 달간 스튜디오 아카이브 구축 등의 학예업무와 행정업무 보조 알바에 나선 김은비, 배보림 학생은 주어진 업무를 익히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싶었던 배보림 학생은 친구 추천으로 이번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입주작가 정보 등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업로드 돼 있는 자료들을 업데이트 하고 수정·보완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예술 분야 전공자로서 국내외 작가들과 소통할 기회도 갖고 기획실의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알바라 더욱 든든

두 학생이 이번에 참여한 아르바이트는 각 시·구에서 대학생들이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여름방학 기간에 모집하는 '대학생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회 평균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부서별 수요조사 결과와 신청자들의 본인 희망, 전공학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청 및 사업소에 배치됩니다. 김은비 학생 역시 본인이 원한 곳에 배치 받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대학생 때가 한창 진로 고민을 많이 할 때잖아요. 저 역시 요새 진로 고민이 많은데, 평소 궁금했던 미술관 업무를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운영하니 급여 문제도 믿을 수 있고, 방학 중에만 단기간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힘들었던 알바, 더욱 끈끈한 유대감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임금체불 문제를 겪지는 않았지만 두 학생 모두 다소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배보림 학생은 부모님의 이민으로 해외에 거주하다 대학입학과 함께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문화와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해 방학기간에 잠깐 했던 첫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초·중학생 대상 영어학원 보조강사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런데 하는 일은 보조강사가 아니라 직접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혼란스러웠어요. 문화의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원장님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그냥 참았지만 그런 요구가 좀 난처했어요."

김은비 학생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마음이 무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관람객 동선을 안내하고 불만을 해결하는 현장 업무를 지원했는데 말을 함부로 하던 관람객들이 상급 관리자의 통제에 바로 유순해지는 것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알바생들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힘든 업무를 함께 해나가며 다른 알바생들과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것은 있었죠. 그 친구들과는 아직도 연락하며 지내요." (웃음)

관계의 확장, 알바의 또 다른 수확

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간 동안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중요한 행사 하나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2분기 국외 작가들의 전시인 <프릭션, 어셈블리즈, 앤드 아더 스토리즈> 개막을 준비하며 두 알바생도 무척 바빠졌습니다.

"관람자 입장일 때는 몰랐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외국 작가들과 좋은 결과물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무슨 일이든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구나' 느꼈습니다. 전시를 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현장 가까이서 보고 배우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학 레지던시 아르바이트가 진로 고민을 심화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는 김은비 학생,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라고 추천을 아끼지 않는 배보림 학생. 이번 아르바이트를 통해 만난 사이지만 같은 또래로서 비슷한 고민으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 이번 아르바이트의 또 다른 큰 수확이 되었습니다.

경력단절 딛고 일터로 돌아와 다시 찾은 삶의 보람

결혼과 동시에 가정을 돌보느라 회사를 그만 두었던 황주미 씨는 출산과 육아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35년여를 일명, 경력단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눈에 들어온 지역 소식지 내 중장년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터로 돌아온 그녀는 현재 보훈단체 지역회의 사무과장으로 일하며 다시금 새로운 보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사무실에서 보내는 바쁜 하루하루

황주미 씨가 일하고 있는 곳은 파주시 보훈회관입니다. 9개 보훈단체의 파주지회 사무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중 황주미 씨는 광복회 파주지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1919년 수립되어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로 이뤄진 단체로 경기도 21개 지부 중 한 곳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단체이면서 비영리기관으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회계업무, 3.1절을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파주지회는 파주시 보훈단체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황주미 씨는 2017년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주지회에서는 당장 '황 과장' 없으면 곤란할 만큼 황주미 씨는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광복회 업무는 시청, 보훈청, 보건소 등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3.1절, 광복절 등 큰 기념행사를 비롯해 지역출신 독립운동가 합동 추모제, 학술심포지엄 등은 유관기관의 협조 없이는 진행할 수가 없죠. 따라서 주로 공문이나 기획안 등을 작성하는 일을 하고 보도된 행사 스크랩을 해두고, 우편물, 출납 정리 등을 하고 업무일지까지 쓰면 하루가 마감돼요.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죠."

재취업에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

이곳에 오기 전 황주미 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가정살림을 맡은 주부로서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친구처럼 의지하고 지내던 외동딸을 출가시키고 그 무렵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까지 떠나보내게 된 황주미 씨는 갑자기 홀로 보내야 하는 시간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정신적으로 힘들더군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고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지내는 건 적성에 맞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도 늘 비슷한 패턴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으로 배달되어 온 지역소식지를 넘겨보다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중장년 재도약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찾아간 그곳에서는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돼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자격증은 있느냐, 전공은 뭐냐 등 취업희망자에게 묻는 그냥 의례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도 답할 게 없는 제 모습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사무직에 있었지만 너무 오랜 시간 사회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기에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실망스러웠습니다."

재취업 준비, 새로운 삶의 시작

학업에 대한 열망이 내내 남아 있었다는 황주미 씨는 어느 만학도가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 간다'라고 한 말이 가슴에 와 닿아 그해 방송통신대학교 가정복지학과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인적사항만 남겨두고 나왔던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장년 재도약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라는 권유였고, 이후 정보화과정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과정이 끝나면 또 다시 권유 받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며 사회화에 필요한 자질을 갖춰가고 있을 때쯤 지금의 광복회 파주지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추석 연휴였는데 바로 일할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우물쭈물하면 다시 기회는 없을 것 같아 할 수 있다고 하고는 당장 출근하기 시작했죠."

3개월 계약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성실히 일하는 모습과 어르신들을 대하는 예절, 그리고 늦은 나이지만 학업을 다시 시작했다는 열정이 높이 평가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4대보험과 퇴직금도 받게 되어 오래도록 다니고 싶은 든든한 일터입니다.

"여기 보훈회관에는 저처럼 주부로 머물다 새롭게 일을 시작한 분들이 많아요. 지난해 저의 권유로 대학에 등록한 여직원도 2명이나 되죠. 다들 공부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서로 관심사도 같고 말도 잘 통하니 의지가 됩니다. 시작이 어렵지 막상 나오면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 나와 보세요. 우리 생각에만 머물던 삶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황주미 씨가 말하는 재취업 성공 비결 3가지

1. 일단 집을 박차고 나와라, 여기에서 반은 성공!
2. 주변에 널린 취업 소식에 늘 관심을 가지라, 정보가 힘!
3. 컴퓨터 활용법을 미리 배워라,
   이것은 어느 분이 취업이건 기본!

취업의 여정에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준 대학일자리센터

#1 전문성 갖춘 컨설팅으로 가닥 잡은 취업 방향

70년 이상 농기계 시장을 주도해오고 있는 탄탄한 기업에서 영업관리를 맡고 있는 김형모 씨는 자신의 적성과 일치하는 현재 업무에 만족합니다. 전반적인 회사 영업관리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신에게 적합한 업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학시절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과학, 기계 등에 꾸준히 관심이 있던 터라 그 주변 분야를 맴돌고는 있었지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현재 회사에 입사하고 업무를 맡기까지 적지 않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의 성과를 이뤄냈고, '가로등 발전기'와 '자동 우산' 특허권도 획득하였습니다. 800시간 가량의 아동센터 교육봉사도 틈틈이 했습니다.

"취업 잘 되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관심 분야가 많아서 그런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3학년부터 취업 고민을 했던 김형모 씨는 대학일자리센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문성 갖춘 컨설턴트의 컨설팅은 김형모 씨가 가진 역량을 100%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 진정성 넘치는 컨설팅으로 최선의 선택

"컨설턴트 선생님과 자기소개서부터 썼어요. 제가 쓴 자기소개서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수정하는 식으로 두세 달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제 장점인 공모전 참여와 봉사활동 등을 잘 표현하도록 이끌어주셨어요. 말과 글을 표현하는 일에 서툴렀는데 선생님의 풍부한 어휘와 표현력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지도를 받았으며 JJ취업컨설팅Day(1:1입사지원서, 면접 컨설팅), 집중 취업 교육이 이뤄지는 '취업벼락치기'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위한 다양한 스킬을 쌓았습니다. 특히, 기업 인사담당자가 들려주는 실무경험담이나 면접 이야기는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형모 씨는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취업만큼 큰 성과를 이루게 되는데요, 지역 강소기업 몇 곳과 연계해 진행되는 공개채용 오디션 '잡영챌린지(Job Young Challenge)에서 당당히 전라북도 도지사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수상자 일부에게는 원하는 기업의 최종 면접권이 주어지는데 김형모 씨 경우에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연구원직이 보장되는 상상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노력을 통해 얻은 큰 기회였지만 아직 도전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고민과 컨설턴트의 진심 어린 조언에 큰 용기를 얻어 자신에게 가장 맞는 회사와 직무를 찾기에 이르렀고 그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TIP

김형모 님이 말하는 취업 성공을 위한 꿀팁!

대학일자리센터는 지역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 입사지원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JJ취업컨설팅 Day(1:1입사지원서, 면접 컨설팅), 취업벼락치기(인사담당자와 함께 하는 모의면접), 기업 인사담당자의 실무경험담과 면접 팁이 도움 되었습니다.

- 원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참여해 취업 성공
- 컨설턴트와의 지속적인 교감과 도움으로 취업하여 근무

뉴욕 취업의 꿈
K-MOVE로 날개 달다

#1 워킹홀리데이가 틔운 해외 취업의 씨앗

김송애 씨는 미국 뉴욕 한인 기업에서 경영지원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루프탑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타임스퀘어를 걸으며 퇴근길을 즐기는 등 누군가의 로망이 될법한 일상을 뉴욕 취업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 시절 알게 된 워킹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이 해외 취업의 첫 걸음이 됐습니다. 돈을 벌면서 외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의 매력에 빠져 1년간 휴학하고 떠난 호주 시드니행이 그 시작이었지요. 호주에서 식당부터 카페 서빙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해외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동시에 영어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이어간 평범한 대학생활 중 해외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이 다시 한 번 김송애 씨를 해외로 이끌어주었고 세계적인 도시, 뉴욕을 목표로 심기일전하기에 이릅니다.

#2 K-MOVE 해외취업 아카데미, 설명회 활용해 해외 취업 준비

김송애 씨는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영어를 보완했고 학교 강의가 끝난 저녁에는 업무에 필요한 엑셀을 공부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영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회화공부를 하며 해외 인턴십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에서 제공하는 해외취업 아카데미와 설명회 등에 참여하며 해외 취업시장을 파악했고 이력서와 면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간고사가 겹칠 때는 밤샘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해외 인턴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에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준비 끝에 김송애 씨는 꿈에 그리던 뉴욕에 입성하였습니다. 40년 이상 된 탄탄한 식품 납품 도매회사에 합격한 김송애 씨는 아침에 출근해 외상 매출금을 처리하고 전화업무, 부도어음 관리 등 경영지원과 회계업무를 처리하며 업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과 꼼꼼함으로 신뢰를 쌓아 훗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세계 어디를 가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당차게 세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잘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TIP

"김송애 님이 말하는 취업 성공을 위한 꿀팁!"

해외취업 아카데미, 설명회 등 해외취업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외 취업시장 파악뿐만 아니라 이력서와 면접 준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이 부딪히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알아보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스스로 다독이고, 칭찬도 하면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 K-MOVE를 통해 미국 뉴욕 한인 회사 경영지원 회계 분야 취업 성공

※ 해외취업 아카데미와 해외취업설명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첫날처럼 35년 외길을 달리다

산업용 자동화 장비 판매 및 수리 서비스 전문기업 ㈜엠이티 김영삼 대표

㈜엠이티(M.E.T)의 슬로건은 '공장이 멈춰버린 순간, 엠이티를 만났다'입니다. 전기전자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으로 2002년 ㈜엠이티를 설립한 김영삼 대표는 국내외 6,000여 고객사에 자동화장비를 위한 최적의 부품 공급과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후 "시야와 사고가 확장되었다"고 말하는 김영삼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글 이지연 / **사진** 스튜디오J

자동화 장비 유지·보수·운영의 든든한 파트너

산업현장에는 무수히 많은 생산설비들이 존재합니다. 이 설비들이 고장 나 멈춰버리거나 대체 부품을 빠른 시일 내 공급받지 못하면 공장 가동이 멈추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는 곧 기업의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납기일을 제때 맞추지 못해 지체상환금까지 내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엠이티 김영삼 대표는 "아프고 병든 기계를 고쳐주는 의사다라는 자세로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설비의 고장난 곳을 진단·수리하고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한 것이 성장의 비결이었다"고 회고합니다. 희소가치를 지닌 자동화파트 6만여 개, 전자파트 1만 1천여 종 부품과 첨단 수리장비 보유, 엔지니어 육성, 멀티태스킹의 전사적 인재육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믿고 따라준 전임직원들의 노력이 ㈜엠이티의 성장을 이끈 소중한 자산이라 덧붙였습니다.

㈜엠이티는 이러한 기술력과 철학을 바탕으로 LG전자, 삼성,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비롯,국내외 6,000여 고객사 생산 설비의 유지·보수·운영을 책임지는 MRO파트너로 신뢰를 얻으며 창립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연평균 매출 성장률 20%라는 눈부신 성과를 달성해 왔습니다. 해외구매대행서비스는 물론 엔지니어 파견 및 상주서비스, 24시간 긴급 대응서비스, 자동화장비 정기점검 및 수리조치, 1초 견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보다 앞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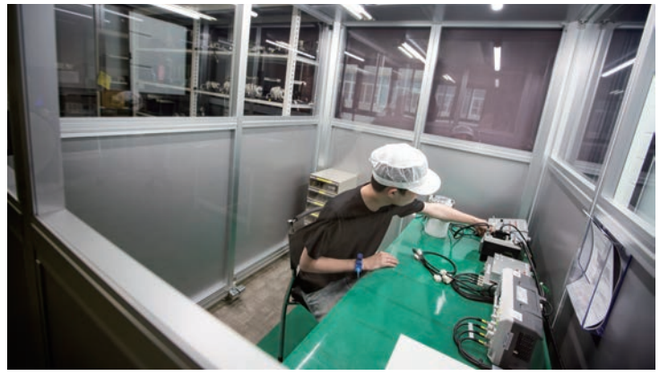
기술의 힘으로 성장해온 17년의 역사

㈜엠이티의 중심에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김영삼 대표가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고향인 광주를 떠나 경북 구미에 있는 금오공고 전자과에 입학한 것은 기숙사 제공은 물론 학용품, 생필품 제공에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로 끊임없이 공부했고, 결국 기능대회 출전 선수로 뽑혀 밤낮 없이 전기전자기술을 익힙니다. 그때 전자기기, 전기공사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등 각종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그는 1986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 금메달 수상의 영광을 얻습니다. 당시 청와대 초청은 물론 9시 뉴스에도 나왔다니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오공고 졸업 후 5년 간 기술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방공레이더를 비롯 각종 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습니다. 대부분 외산 설비였지만 전기전자의 원리만 이해한다면 어떤 최신 장비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죠."

그렇게 10년 동안 기계장비, 의료기기 유지·보수 업체에 근무했던 김영삼 대표는 서른다섯 살이던 2002년 ㈜엠이티를 설립합니다. 7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에서 홀로 시작한 길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표의 집념과 열정으로 성장해온 ㈜엠이티는 다종의 제조사 장비수리를 위한 테스트 지그 제작에 투자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중고장비도 수출 및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엠이티 기술력의 진보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전문기업'으로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투명경영을 근간으로 나아갈 ㈜엠이티의 미래

"'자연은 선조에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물건이라도 고장 났다고 해서 바로 버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억, 수십억 대의 산업용 자동화 장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장 나지 않게 정기점검하고, 고장 나도 수리해서 수명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는 자원 재순환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엠이티는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와 인재영입, 인재육성 등을 아끼지 않은 결과 해외 굴지의 회사들로부터 무수히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표는 회사의 규모가 커진 만큼 창립 초기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고, 2012년 법인 전환 후에는 외형적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면 현재는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합니다.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위기라 생각한다'는 그는 투명경영이야 말로 위기를 타개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강조합니다.

"투명경영을 근간으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애써준 임직원들에게 발전적 비전을 공유하고 안정된 직장 분위기를 제공하며 경제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대표로서의 제 목표입니다. 지난해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후 앞만 보고 달리느라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되짚어볼 수 있었고 기술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강연할 기회도 생겨 선배로서 조언해줄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남들은 어려운 과정들을 넘어 성공가도에 올랐다고 박수를 쳐주지만, 이제 달리기 위해 운동화 끈을 맨 것뿐이라고 말하는 김영삼 대표. 그래도 앞만 보고 한길로 한결같이 달려온 자신에게 오늘만큼은 "잘했다"라고 말해주고 싶답니다.

> 기술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강연할 기회도 생겨 선배로서 조언해줄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고용시장 선순환의 마중물을 채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일터, 같은 업무에도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면 차별을 받는 입장에서는 의욕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곧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겠지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지만 고용불안, 차별 등 사회양극화를 야기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는 고용-복지-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 편집부

변화의 기본방향, 효용성을 넘어 **인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은 효율성에 무게 중심을 둔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을 인간 중심으로 옮겨오는 데 그 의의를 가집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명(16.9%)으로 비중이 민간(32.8%)의 절반 수준이나, 그동안 정규직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로 파견·용역 등 외주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시장 내 차별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모범사례를 통해 우리사회의 고용관행을 개선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예상되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가지 원칙

❶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❷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❸ [단계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
❹ 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❺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대상별 추진

- 기간제: 정규직 전화 심의위원회를 통한 정규직 전환
-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
-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및 인사시스템 체계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이해 담긴 결과 도출**

정규직 전환은 대상기관별로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는 범위·업무가 비교적 명확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2단계에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에는 민간위탁기관이 대상이며 각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데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집니다. 전환대상에 대한 결정방법과 전환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전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환 예외 사유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❶ 60세 이상 고령자 ❷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 특성에 따른 사유

기간제

❶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❷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❸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❹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❺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파견·용역

❶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❷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❸ 산업 수요·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❹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❺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합한 채용방식 적용해 **채용 리스크 줄이고 형평성 확보**

채용방식은 기관별 이해관계자와 협의 하에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을 조화시켜 결정합니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17.7.20)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결격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의 평가를 거쳐 채용 리스크를 줄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나 주기적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공개경쟁(가점부여) 등의 적합한 방식을 채택합니다. 임금체계 역시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를 반영하며 전문가 자문과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합니다.

전환 예외자 소외 없도록 세심한 **고용안정 방안 모색**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표준인사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이윤·관리운영비 등을 반드시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여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채용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상시·지속적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을 소개합니다

취업시장에서 인기 많은 국가기술자격증 20선

국가기술자격의 종류가 총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총 542개 종목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기술직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 경우도 많아 취업을 위한 첫 단계로 일찌감치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턱대로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선별해서 공략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2018년 한 해 동안 구인기업이 가장 많이 요구한 자격증은 무엇이고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정리 편집부

구인 공고 4건 중 1건 자격증 요구
더 높은 임금 제시

공공 부문의 대표 취업 지원 누리집인 워크넷(www.work.go.kr)의 2018년 구인 공고 약 118만 건 중 자격과 관련된 구인 건수 비중은 23.8%로, 4건 중에 1건 정도는 채용할 때 자격을 요구하거나 우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인 공고에서 제시한 임금은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할 때는 월 평균 225만 9,000원으로 자격증이 없을 때보다 25만 8,000원이 높았고, 기타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와 비교해도 21만 3,000원이 더 높았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취득자 매년 증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급증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와 취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응시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약 2% 증가했으며, 취득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1.7% 증가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방법은 검정형이 약 99.5%(2018년 기준)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과정평가형이 매년 급격하게(2017년 대비 2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등급의 자격 취득 활발
60세 이상 장년층도 지난해 대비 큰 비중

기술·기능 분야 중 기능사 등급 취득자가 약 73%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기사(16.3%), 산업 기사(9.6%) 등급 순입니다. 기사와 산업 기사 등급은 지난해 보다 약 1.4%p 늘어, 높은 등급의 자격 취득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자 연령은 20세~29세의 청년층이 전체 취득자의 41.5%로 가장 많고,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60세 이상의 장년층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자격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축기사, 한식조리기능사 순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일명 취업이 잘 되는 자격) 20선에 국가기술자격은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축기사, 한식조리기능사 등 10개 자격이 포함됐습니다. 국가기술자격만 한정해서 순위를 매기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모든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위를 차지했고, 그 뒤인 2위에는 건축기사, 3위에 한식조리기능사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전기 분야는 전기기사 4위, 전기산업기사 6위, 전기기능사 7위, 전기공사산업기사 12위, 전기공사기사 18위로 5개 자격이 20선 안에 포함된 점이 눈여겨 볼만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을 포함해 구인 공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자격은 자동차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자격 취득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을 때, 구인공고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따라서 자격 취득을 준비하기 전에 큐넷(www.q-net.or.kr)에 접속해 관련 법률에서 해당 자격을 우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이 잘 되는 자격 20선

자격증 전체		
순위	종목명	구인건수
1위	자동차운전면허	68,500
2위	요양보호사	61,763
3위	사회복지사	14,404
4위	간호조무사	9,139
5위	보육교사	9,046
6위	지게차운전기능사	7,376
7위	건축기사	7,162
8위	한식조리기능사	6,682
9위	간호사	5,360
10위	자동차운전면허1종대형	4,581
11위	전기기사	4,017
12위	토목기사	3,489
13위	전기산업기사	3,086
14위	전기기능사	2,953
15위	직업상담사2급	2,855
16위	영양사	1,800
17위	용접기능사	1,732
18위	정보처리기사	1,717
19위	전산회계1급	1,557
20위	전산세무2급	1,426
국가기술자격		
순위	종목명	구인건수
1위	지게차운전기능사	7,376
2위	건축기사	7,162
3위	한식조리기능사	6,682
4위	전기기사	4,017
5위	토목기사	3,489
6위	전기산업기사	3,086
7위	전기기능사	2,953
8위	직업상담사2급	2,855
9위	용접기능사	1,732
10위	정보처리기사	1,717
11위	건축산업기사	1,422
12위	전기공사산업기사	1,296
13위	에너지관리기능사(구 보일러기능사)	1,281
14위	자동차정비기능사	1,203
15위	컴퓨터활용능력2급	1,140
16위	건설안전기사	1,059
17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1,055
18위	전기공사기사	1,046
19위	수질환경기사	861
20위	산업안전기사	854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

건설과 전기 등 면허 성격의 자격이 다수

자격 분야 및 등급별 취득자가 많은 종목을 보면 구인 건수가 많은 자격이 대체적으로 취득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건설과 전기 등 면허 성격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취득자가 많은 편이며,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산업 안전 분야의 자격 취득자도 많은 상황입니다.

연령대와 성별로 보는 취득 순위

여성은 조리기능사, 남성은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위

취득자의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취득이 가장 많습니다.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는 주로 창업하기 때문에 구인 공고는 많지 않지만 19세 이하와 2030 세대에서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취득자는 25만 1,001명으로 전체 취득자의 36.4% 정도이며 지난해보다 0.5%p 증가하였습니다. 여성이 주로 취득하는 종목은 조리와 미용 분야이고, 남성은 주로 지게차와 굴삭기운전기능사, 정보처리 분야 등에서 취득해 분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2018년 성별 취득 상위 5개 종목

국가기술자격		
순위	종목명	구인건수
1위	남성	지게차운전기능사(35,819명)
	여성	한식조리기능사(18,643명)
2위	남성	굴삭기운전기능사(18,214명)
	여성	미용사(일반)(11,885명)
3위	남성	전기기능사(17,643명)
	여성	미용사(네일)(11,431명)
4위	남성	정보처리기사(11,355명)
	여성	미용사(피부)(10,700명)
5위	남성	정보처리기능사(10,504명)
	여성	미용사(메이크업)(9,601명)

신입사원 쓰러지다!

그림 정민영

박의지 씨의 오늘의 메모장

쓰러지기 전에 기억하자!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
물, 그늘, 휴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간담회 개최

수기 부문 7점, 영상 부문 6점 총 13점 시상,
수상자들과의 간담회 열어

고용노동부는 7월 17일(수)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콘텐츠 공모전」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과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월)부터 5월 23일(목)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러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기 부문 7점과 영상 부문 6점 총 13점에 대해 시상하고 총 66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대상(부문별 1점)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최우수상(부문별 1점)에는 한국노동연구원장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수기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박선영 씨는 투병 중이던 남편이 정규직 전환으로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연을 전하며 전환 정책이 자신에게 희망과 기쁨이 된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도 그 혜택이 전해지길 기원했습니다.

영상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라경채 씨는 정규직 전환으로 변화된 본인의 삶을 인터뷰 형식으로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던 아내가 정규직 전환 이후 자녀 계획에 대해 말을 꺼낸 것은 고용이 안정된 결과라고 생각된다면서 '정규직 전환 정책은 우리가 겪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고 정규직 전환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상식 이후에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수상자들의 정규직 전환 소감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20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 이후 2년 동안 약 18만 3,000명을 전환 결정하고, 그 중 14만 명을 실제 전환하는 등 정규직 전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설문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정규직 전환 이후의 처우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제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산재 사망사고 감소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 강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안전생활시민연합 등 노사정과 유관 기관의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5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가 이어졌으며,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라는 주제 아래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포상,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등 최신 안전보건 쟁점 세미나(총 34건), 산업재해 예방 우수 사례 발표(14건) 및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에는 '안전보건 일자리 박람회(Job Fair)'를 새롭게 구성해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 기업 등에서 채용 상담과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등 안전보건 분야의 구직자들에게 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참여 행사로는 우리 사회 안전을 주제로 한 특집 강연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안전 연극,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외국인 안전 퀴즈 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누리는 강조 주간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예방유공 포상자를 격려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똑같은 무게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정착과 건설업 추락사고의 집중 관리 등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정하고, 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운영하는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98개 과정 선정

▸ 2019. 7. 2.
▸ 문의 : 인적자원개발과 권유리 사무관(044-202-7308)

고용노동부는 7월 1일(월) 2019년 하반기에 운영하는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과정(98개 과정)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과정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학생이 1년 또는 6개월간 민간 훈련기관에서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교육부와 함께 연 2회 학생들의 참여 의사와 선호 직종을 조사하고, 훈련 기관의 역량과 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해 우수한 훈련 과정을 선정합니다.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과정은 2015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후 참여 인원이 꾸준히 늘어 지난 5년간 총 2만 4,951명이 참여했으며 훈련 직종은 제과 제빵과 헤어 미용 등 서비스 분야에서부터 3차원(3D) 프린팅 디자인, 게임 콘텐츠 제작 등 앞으로 산업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번 하반기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 과정은 6개월(2019년 9월~2020년 2월)간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7월부터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2019년도 고용형태 소속 근로자 비율 0.4%p,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 비율 1.2%p 증가

▸ 2019. 7. 12.
▸ 문의 : 일자리정책평가과 윤명식 사무관(044-202-7233)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른 공시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의 2019년도 3월 말 기준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장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추가로 공시했습니다.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3,454개소이며(공시율 99.9%), 이들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 수는 485만 9,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규모별 비중은 500인 미만이 44.4%, 500~999인은 32.0%, 1,000인 이상은 23.6%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00인 이상 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485만 9,000명으로 소속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는 397만 9,000명(81.9%), 소속 외 근로자는 88만 1,000명(18.1%)였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40.5%(10만 2,000명)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대비 소속 근로자는 0.4%P, 소속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1.2%P 늘었고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용 공정성 침해, 개인 정보 수집 및 요구 금지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2019. 7. 17.
▸ 문의 : 공정채용기반과 김진웅 사무관(044-202-7436)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됩니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채용의 공정성 침해'를 기본으로 하며,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상당 부분 개선 중 확인

▸ 2019. 7. 18.
▸ 문의 :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사무관(044-202-7528)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지난해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할 때 현장 스태프들과 관련된 계약 관계가 팀 단위로 체결하는 도급 계약에서 스태프와 직접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 조건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근로감독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동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으로는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드라마 제작 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로 함께 즐거운 세상을 꿈꾸는
㈜명랑캠페인

선 긋지 말고, 색안경 벗고 다 같이 놀자

㈜명랑캠페인은 연극, 교육, 콘서트, 영화제 등을 무대에 올립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사회적 소외와 편견 속에 갇힌 이들이 함께 합니다. 편 나누지 말고, 소외시키지 말고 문화예술을 통해 다 같이 즐겁게 놀아보자는 마음으로 설립된 ㈜명랑캠페인은 이름처럼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우리 마음 속 편견의 선들을 깨끗이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변화들

지난 7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수상한 ㈜명랑캠페인 오호진 대표는 이번 수상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영화 <친구> 제작사 기획자로 시작해 영화 <말아톤> 제작에 참여하며 2년여를 장애인들을 만났고 사회 문제를 다룬 다양한 영화 제작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관심을 가져 하게 된 일이지만 수상을 염두에 둔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로 마음 맞는 사람들과 다 같이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사회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런 명예로운 상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하면서도 하나하나 떠오르는 얼굴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누구와 함께 해야 확산이 잘 될까, 어떤 분들과 연대해야 파급 효과가 커질까를 고민했어요. 회사의 몫이 작아지더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했을 때 그 힘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얼마나 더 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저희도 이 일을 통해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죠."

마음 터놓고 얘기할 기회가 만든 새 삶의 의지

2015년에 설립된 ㈜명랑캠페인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소외, 편견 등에 맞서 문화예술콘텐츠로 사회 변화를 실현하는 일에 기업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간의 활동들만 보더라도 부지런히 자기 몫의 가치를 실현하며 달려온 사회적기업입니다.

그 중 <미모되니깐>은 그동안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고, 속앓이하는 미혼모들이 연극이라는 문화적 형식을 통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실컷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명랑캠페인은 이 공연을 진행하며 1989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법'의 개정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외면해 왔던 미혼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두 가지 법안이 국회에 통과돼 일명 '입법연극'이라는 애칭도 붙었습니다.

"처음부터 연극을 올릴 계획은 없었어요. '미혼엄마들이 잠깐이라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만나다보니 친해져 마음 속 깊은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연극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죠. 공연 보러 오신 분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감동해주시니 엄마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용기를 얻은 대상자들은 다시금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갈 힘을 얻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50대 독거남들을 사회로 이끌어내고자 기획한 ㈜명랑캠페인의 <나비남 영화제>도 그런 의미가 담긴 활동이었습니다.

"일 없이 혼자 사는 독거남 중 외부활동도 거의 안 하고 외톨이로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모두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하루 종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제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해 나온 영상물로 스마트폰 영화제를 열었고 그 첫해에 3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이 콘텐츠를 기획한 ㈜명랑캠페인보다 더 고무된 건 독거남들이었습니다.

"영화제에 참여하신 독거남 중 택배 일을 시작하시는 등 자립하신 분이 많아요. 참여자 한 분은 영상 상영 이후 이어진 토크쇼에서 어딘가 있을 아들에게 '아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제 잘 하겠다'라고 고백하시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 계신 모두가 감동받았죠."

5년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함께 함'을 통해 이뤄가는 기적이 여전히 놀랍다는 오호진 대표의 말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가진 힘, '같이'의 가치를 생각해봅니다.

감동의 고백, 아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Mini Interview 명랑캠페인 Merry Campaign

새로 찾은 제 삶의 가치를 함께 실현 중이에요

– 기획총괄 담당 **전진 이사**

오래 하던 매체 기획일을 접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가 진행하던 한 매체의 취재 중 전국의 마을공동체에 계신 분들을 만나 인터뷰하며 느낀 '함께'의 가치 때문이에요. ㈜명랑캠페인에서 그 가치를 실현 중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능력 펼치며 보람을 찾습니다

– 기획, 스토리텔링 담당 **장유정 실장**

㈜명랑캠페인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돕기는 했지만 사회적기업 활동에는 개인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껴 선뜻 합류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일 역시 제 능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됨을 경험하고 재미를 느끼며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이 조직문화를 바꾸다

경쟁보다 협업으로 함께하는 성장 이룬 한라신용협동조합

제주도 내 최초로 2015년 전국 910개 신협 중 종합경영평가 1위로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등 탄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아오고 있는 한라신용협동조합(이하 한라신협)은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조직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임금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라신협의 임금체계 개선의 과정을 함께 보실까요?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관리 어려웠던 복잡한 임금체계

1970년 설립, 내년이면 창립50주년을 맞이하는 한라신협은 본점을 포함, 제주 주요 지역에 5개소의 지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성장하면서 한라신협은 기존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느끼고 임금체계 개선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금제도는 연공과 성과가 혼재되어 있었고 각종 수당체계가 복잡한데다 보상관리의 기초가 되는 직급(12등급)이 과다해 효과적인 임금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호봉적 임금구조로 인해 하위 직급 직원들의 성과나 능력 발현의 동기 부여가 부족했습니다. 평가체계는 영업 성과 지표 중심으로 이뤄지니 후선 직무 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니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는 누적되고 부서간 협업은 어려웠다고 이호성 상무는 이야기합니다.

“조합이 어려울 때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긴 했지만 이제는 단순 성과 관리보다는 전문성을 키우며, 개인보다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

를 위해 무엇보다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임금항목을 간소화하고 임금체계 역시 단순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부합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제도를 설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개편 위해 의견 수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임금체계를 간소화하고 직무·성과·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직관적 평가제도 구축을 위해서 직무별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직급·승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등 개선된 임금 및 평가제도의 안정적 적용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기존의 성과급 제도 역시 직원들의 합의를 기초로 만들어졌기에 이번 개편 역시 직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급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직무별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워크숍을 통해 해당 업무 직무자들이 직접 이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설명회와 의견 청취,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개편된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직률은 줄고, 함께 하는 협업문화 형성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라신협은 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기준임금으로 통합하여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12등급이었던 직급체계를 8등급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호봉제 완화, 성과와 역량에 기반한 임금체계 구축, 페이밴드 시스템 도입, 평가결과와 연동된 기본급 인상률 결정 등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개인-팀간 성과의 비중을 재조정하고 부서별 평가지표를 다시 만들어 개인간 경쟁보다는 부서간 협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감사실 이원재 부장은 덧붙였습니다.

하위 직급의 임금 상향 조정도 이번 개편의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초봉이 오르고 부서간 협업이 중시되는 분위기 덕분에 신규직원의 정착률이 크게 높아지고 이직률도 제도 개편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의 행복이 양립될 수 있도록 연차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여 직원들의 워라밸도 챙기고 있다고 한라신협 김명옥 이사장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저녁이 있는 삶을 중시하잖아요. 휴가 내는 저희 직원들도 대부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이번 임금개편으로 마음에도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워라밸이 있는 삶, 일할 맛 나는 일터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Mini Interview

기획관리실
안정민 과장

성과연봉제와 직무별 평가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인사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노사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요. 노사협의회 운영과 부서 내 소통 채널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원지점
김채은 대리

성과-보상 연동 임금제도로 업무능률이 오를 것이라 생각돼요. 부서 내 협업 문화도 잘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사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노사가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우린 워라밸도 우리 스타일이다

좋은 피부를 위해서는 피부 속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장품 광고 카피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천연유래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isoi)는 피부 건강을 챙기는 세심함으로 회사 내 직원들의 워라밸도 꼼꼼히 챙겨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행복을 챙기면서 회사 내 조직력까지 탄탄해진 기업 '아이소이'를 찾아가봅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피부 속 건강 챙기듯
직원 행복 챙기는

아이소이

자사만의 독특한 워라밸 제도 운영

피부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브랜드 '아이소이'는 2009년에 창립하여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아이소이는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바로 '2019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소식이죠.

아이소이는 특히 자사만의 독특한 워라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돋보입니다. 화장품 전문기업으로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기업의 색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운영 중인 워라밸 제도 중 한 가지는 사내 필라테스 강좌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점심 12시부터 40분간 아이소이 빌딩 4층에서 진행되며, 기본적인 스트레칭부터 업무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근력운동까지 병행되어 자세 교정은 물론, 근력 강화도 가능합니다. 본인 역시 필라테스를 통해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마케팅팀 전희덕 대리는 사내 또 다른 건강 워라밸로 직원 식당을 소개하였습니다. 유명 한식당 조리장 출신인 베테랑 요리사가 만든 유기농 점심밥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워라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직원들의 건강입니다. 직원들이 건강한 식단을 통해 영양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유기농 식단으로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메뉴 선호도를 조사하여 식단에 반영하니 호응도 좋습니다."

직원들의 니즈를 파악한
호응도 높은 워라밸 제도

그렇습니다. 워라밸 제도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호응이지요. 아무리 근사한 복지제도도 직원들이 활용하기 어렵고, 업무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이소이는 거창한 워라밸 보다는 업무 중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워라밸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내 북카페, 여직원들을 위한 파우더룸 겸 리프레쉬룸, 탁구장, 옥상정원 등 다양한 휴게시설을 마련해 직원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 지원을 위해 댄스, 커피, 와인강좌 등 다양한 분야가 격주로 진행되는 'Grade UP 클래스', 업무지식을 높이는 '마케팅 MBA과정' 등의 교양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았던 클래스는 연장진행하거나, 직원 투표로 정기 클래스 전환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워라밸 제도에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시무식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매해 시무식에 꼭 구성되는 순서가 '나만의 목표 공유'입니다. 사원들은 개인적·업무적 목표를 각각 3가지씩 적어온 후 모두의 앞에서 공표합니다. 이때 직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표는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을 통해 선순환 되는 기업의 가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아이소이의 워라밸 제도는 대부분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중 단연 인기 있는 제도는 '해외출장'입니다. 4일에서 10일 내외의 일정으로 아시아권부터 유럽, 미국까지 다양한 국가로 떠날 수 있으며 업무일정 외에도 관광, 문화탐방 등 개인이 원하는 자유일정을 구성하여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 외에도 야근 없는 수요일인 '빨수' 역시 직원들의 워라밸을 지키는 아이소이만의 워라밸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 역시 건강한 워라밸과 통한다는 생각에 아이소이는 기부 실천을 사내 복지로 만들었습니다. 직원

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매칭그랜트를 통해 국내외 아이를 지원할 경우 동일 금액을 회사에서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기부와 나눔을 통해 얻는 감동은 크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직원들이 그 따뜻함과 감동을 함께 느껴볼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의 제도입니다. 이러한 감동은 결국 고객에게, 일반 소비자에게 다양한 캠페인으로, 제품으로 실현되고 전달되니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선순환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관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아이소이의 워라밸, 청년들이 원하는 강소기업이 될 만하지요?

Mini Interview

유승연
마케팅팀 과장

유연근무제로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됐는데 워킹맘인 저에겐 커다란 혜택입니다. 우리 아이가 늘 제일 일찍 어린이집에 도착하는 게 안쓰러웠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할 땐 병원을 데리고 가는 일에 발을 동동 굴러야했는데 출근시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이런 고민들이 해결됐어요. 당연히 업무적으로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요.

노(勞)와 사(使) 소통의 하모니를 함께 그리다!

㈜KB국민카드

지난 7월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로 업계에 모범이 되고 있는 39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요, 그 중 ㈜KB국민카드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KB국민카드' 하면 그동안 노사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언론에도 많이 알려졌던 만큼 이번 수상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노사 모범기업으로 돌아온 ㈜KB국민카드의 히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노사가 함께 이룬 결실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2003년 신용대란으로 KB국민은행에 합병되었던 ㈜KB국민카드는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분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사 과정에서 인사와 급여, 복지 제도 개선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야기되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결렬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는 등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이어졌지요. 불과 2017년 말까지 이런 갈등의 분위기에 놓여있던 노사가 올해 노사상생 모범기업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직원만족부 최수근 부장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희 ㈜KB국민카드는 수년간의 노사분쟁을 통해 이러한 갈등상황이 노사 모두에게 오히려 득보다 실(失)이 된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신뢰회복을 위한 노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 사업을 시행하는 등 상생의 노사협력을 위해 노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KB국민카드 노사 상생의 노력이 내부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일으킴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어 당사로서는 2019년이 매우 뜻 깊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실무급부터 소통해 성공적 교섭의 물밑 작업

과거 대립적 노사관계를 통해 ㈜KB국민카드 노사는 몇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간의 분쟁과 대립, 갈등의 모든 원인은 작은 오해와 이해충돌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형식적인 교섭이나 행사가 아닌 서로의 진심을 터놓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잦은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교섭에 앞서 실무급 노사공동 워크숍과 TFT를 통해 전사적인 노사 이슈에 대한 노사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실무급에서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노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뒤 교섭에 임하니 더욱 생산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노사 대표가 서로의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하는 일진보한 노사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노사 대표간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고, 사소한 오해나 이해충돌을 예방할 수 있으니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되었습니다.

㈜KB국민카드만의 노사문화 브랜드 'KB국민카드 노사가 함께 그리는 Harmony'

㈜KB국민카드의 노사가 함께 하는 활동들은 'KB국민카드 노사가 함께 그리는 Harmony'라는 브랜드로 론칭되었습니다. 일회성, 단발성으로 진행하던 노사 공동행사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사공동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내부 임직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행사 취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KB국민카드만의 로열티를 제고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각종 소통행사와 교육·문화·복지사업, 봉사활동과 간담회 개최, 가족친화 사업 등을 노사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은 물론 향후 연도별 사업계획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노사가 사전에 함께 고민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만들어진 'KB국민카드 노사가 함께 그리는 Harmony'는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레벨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강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가 종국엔 회사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기존 HR부 내 노사업무와 직원복지를 전담하던 '팀'을 '부서'로 승격시켜 비중을 두었습니다.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노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과거 KB금융그룹 내에서 분쟁 및 갈등 우려가 가장 높았던 노사관계에서 현재는 가장 모범적이고 건강한 관계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KB국민카드의 노사 상생의 역사가 지금도 노사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선례로 지속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Mini Interview

조기천
수석부지부장
전국사무금융
서비스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

노동조합은 늘 투쟁해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붉은 띠 두르고 단결·투쟁해야 하는 일이지만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요. 이러한 노사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차장
총무지원부

'KB국민카드 노사가 함께 그리는 Harmony' 활동 중 '가화만사성' 가족행사에 다녀왔어요. 회사 직원들을 캠핑장에서 편안한 슬리퍼 차림으로 그분들의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보니 새롭더라고요. 모두들 누군가의 아빠, 엄마라는 사실이 새롭고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에게 맞는 직군·
분야를 찾아라!

취업·일자리 박람회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는 8월, 구인 구직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박람회 소식이 무더운 여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각 직군과 분야별로 살펴볼 수 있는 취업·일자리를 통해 구인 구직 성공을 기원하며 8~9월 일자리 박람회 소식을 모았습니다.

정리 편집부

2019 서울시 여성 일자리 박람회

여성들에게 취·창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2019 서울시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취업, 구직 등록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이력서 면접코칭, 직업심리검사, 창업상담코너, 즉석 명함만들기(선착순 50명, 1인 10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과 창업 특강으로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노사를 보호하는 근로계약'이라는 주제로 공인노무사가 취업특강을 진행하며, '창업성공을 위한 지원제도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전문 창업컨설턴트가 전하는 창업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일시 2019년 8월 23일(금)
장소·주최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일본 IT 기업 채용 설명회

2020년 4월 한국 개발자(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일본 IT 기업 채용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일본의 IT기업 테크노브레이브(주), (주)NSTAGE, (주)프레스크, (주)소프트웨어서비스가 참가할 예정이며 일본 IT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시 2019년 8월 7일(수)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27B, C호 **주최** 제이엠피코리아

2019 제4회 일본 취업 합동 박람회

제4회 일본 취업 합동 박람회가 부산시청에서 개최됩니다. 일본 취업 기회의 장이 될 이번 행사에는 일본 취업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행사 당일 진행되는 각종 특강 등은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면접참가자(사전 신청 필수)에게는 일본기업과의 면접(그룹면접, 1:1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시 2019년 8월 24일(토)~8월 25일(일)
장소 부산시청 1층 로비, 대회의실 대강당 **주최** 부산광역시

2019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

대한민국 이공계 인재를 위한 채용의 장 '2019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가 9월 19일(목)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립니다. 100개사, 3000명이 참여 예정인 이번 행사는 우수 이공계 채용를 원하는 기술혁신형 기업 및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장소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해양수산취업박람회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각 분야별, 지역별 고용기회와 채용정보 교류의 장이 될 '2019 해양수산취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해양수산 기업(공기업 포함) 100개 내외 및 관련 기관이 참여 하는 이번 행사는 '일자리의 바다'라는 주제명처럼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4,000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구인구직의 장이 열립니다.

일시 2019년 9월 26일(목)
장소 부산 벡스코 4홀 **주최** 해양수산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법을 연구하다

사업서비스 분야 新직업

‘소믈리에’라 하면 흔히 와인 전문가를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여러 식생활 분야에서 다양한 맛을 조합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을 함께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리와 그 활용에 대한 연구로 우리 생활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이끄는 미래 유망 직종들을 알아봅니다.

정리 편집부(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미래가 온다 새로운 직업이 뜬다>, 교육부 <미래직업 가이드북>)

채소소믈리에

같은 채소라도 계절에 따라 맛이 다르고 이에 따라 요리법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채소의 특성, 맛과 영양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맛있게 요리해 먹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지요. 채소와 과일의 맛을 감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알려주는 채소소믈리에는 유망한 직업 분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위탁 및 초빙 교육 강사, 건강 방송 패널 등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밥소믈리에

밥은 우리 식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밥의 맛과 질은 한국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밥소믈리에는 밥의 원재료인 벼의 상태부터 쌀의 산지 구분, 밥 영양학, 사후 보관까지 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고루 갖추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쌀눈은 얼마나 깎아냈는지, 몇 도에서 얼마나 건조하고 어디에 보관했는지, 어떻게 몇 번이나 씻었는지, 몇 분 동안 가열하고 뜸을 들였는지 등 밥 짓는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안내합니다.

김치소믈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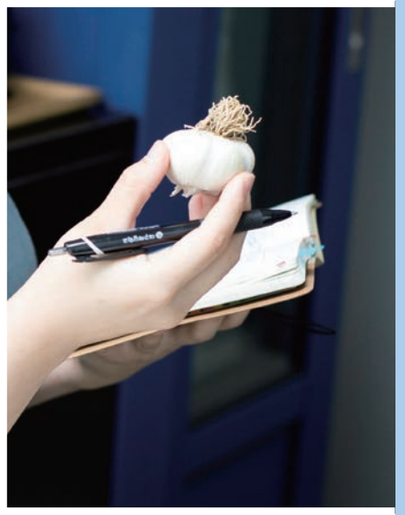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김치는 지역마다, 집안마다 그 맛과 만드는 방법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김치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김치를 담글 수 있고 맛에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전문가를 김치소믈리에라고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김치를 판매하는 이들에게 특정 음식과 잘 어울리는 김치를 추천해주거나 조리법을 전수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김치는 물론 한식에 관한 해박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과채주스전문가

다이어트 및 건강 음료로 각광받는 과채주스는 홈메이드로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영양소 파괴를 줄이고 균형감 있는 영양소 배합 비율 등을 고려해야해 제대로 만들어먹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가진 영양소와 성분을 분석하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맛과 영양소를 착즙해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직업이 과채주스전문가입니다. 다이어트나 건강 관련 식품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입니다.

INTERVIEW

정소이
채소소믈리에



채소가 가진 무궁한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방송을 통해 대중에 채소소믈리에 소개

서구화된 식단으로 비만과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이 생겨나면서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올바른 섭취와 효과적인 활용을 돕는 전문가에 대한 니즈가 생겨났습니다. 갖가지 채소·과일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이들이 가진 가치와 매력을 파악해 필요에 맞게 활용법을 제안하는 전문가, 채소소믈리에가 미래 유망직업으로 주목되는 이유이지요. 유명 모 베이커리 바이럴광고에 채소소믈리에로 참여하여 대중에게 이 직업을 알린바 있는 정소이 씨는 (사)한국채소소믈리에협회에서 채소소믈리에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강연과 방송, 교육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채소소믈리에에 도전하는 다양한 사람들

현재 채소소믈리에 자격과정과 인증을 관리하고 있는 (사)한국채소소믈리에협회는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미 4만 명이 넘는 채소소믈리에가 활동하고 있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요리연구가 김은경 씨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채소와 먹거리 환경에 맞는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설립하였습니다. 정소이 씨는 당시 요리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은경 씨를 돕던 것이 인연이 되어 (사)한국채소소믈리에협회에서 일하게 되고, 자격증 취득 후 전문가로서 관련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소소믈리에에 도전하는 분들을 보면 요리연구가나 푸드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피부과의사, 한의사, 일반 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채소소믈리에는 자신의 분야에 접목해 더 높은 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대학에서 푸드코디네이터 분야를 공부하고 현재 대학원에서는 전통식생활문화를 전공하며 채소소믈리에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들로 산으로 다닌 어린 시절에 익힌 채소 상식

정소이 씨의 부모님은 집 근처에 작은 농장을 가지고 채소며 각종 작물을 직접 키워 식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좋아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산과 들로 다녔고 그곳에서 들풀, 꽃, 야생화를 만나고 흙을 만지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는 정소이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이 분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로 일찌감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다녔다고 할 만큼 부모님을 따라, 동호회를 따라 다니며 들풀과 약초, 야생화의 생김새, 특징을 익혔습니다. 방학 때면 양식조리사자격증부터해서 각종 국가자격증 공부를 해 하나씩 취득하며 이 분야에 대한 저의 재능과 호기심을 스스로 검증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혼자 사시는 분, 소외계층을 위해 요리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강의 요청이 오면 하기도 했어요. 어릴 적 꿈을 빨리 찾은 거죠."

채소소믈리에는 채소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

현재 우리나라 채소소믈리에 자격증은 (사)한국채소소믈리에협회에서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과해 1,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현재 2급 자격증 취득자는 800여 명, 1급 자격증 취득자는 약 4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제로 관련 활동하는 이들은 많지 않아 안타깝다는 정소이 씨는 먼저 활동을 시작한 채소소믈리에로서 탄탄한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채소를 집대성한 도감을 만들기 위해 동료, 사진작가 등이 참여해 자료 작업을 마쳤고, 이후에는 이웃 할머니들에게 직접 발품을 팔아 전해들은 다양한 채소 요리법과 식생활의 역사를 모아 책으로 내고 싶다고 합니다.

"채소소믈리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채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어떤 채소들이 있나 먼저 살펴보세요. 무심코 지나쳤던 다양한 채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궁금증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면 채소소믈리에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SOS 고민 상담소

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Q 편의점 야간 알바생입니다. 친구는 야간에 시급을 50%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편의점은 일하는 사람이 적어서 안준다고 해요. 맞는 말인가요?

A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를 하여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여성과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며 일반 여성의 경우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산부와 연소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 3항). 다만 모든 근로자들이 다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제 11조 제 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동법 동조 2항). 여기서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란 뜻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도 사회통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대법 200.3.14. 99도 1243).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동거친족 등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나 파견·용역·도급 근로자는 제외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아쉽게도 4인 이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100분의 50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제23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휴가'(제60조), '생리휴가'(제73조) 등이 있습니다. 다만 해고 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해고예고 규정'(제26조), 주휴일 에 지급하는 '주휴수당'(제55조)은 적용되므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6개월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아직 1주일 밖에 일 안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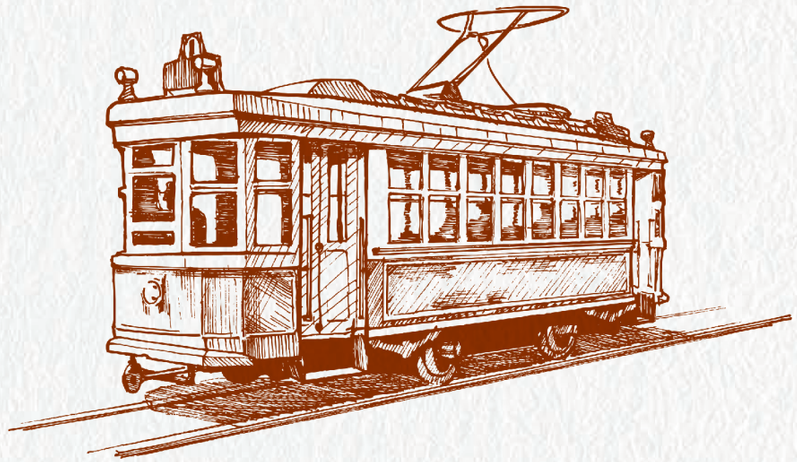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7조). 정당한 해고사유는 획일적으로 규정 지을 수 없으나,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전단).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후단). 해고의 통지와 달리 해고의 예고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한 것으로 해석되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행정해석: 근기 68207-1346). 해고예고는 갑작스런 해고로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①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내지 제3호).
사례의 경우에 일한 기간이 1주일 밖에 되지 않아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예외에 해당하여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과 역사를 싣고 달린 전차운전수

1945년 8월 16일, 서대문형무소의 문이 열리자 그제야 광복을 실감한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며 하나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침 "땡, 땡, 땡!" 종소리를 내며 정류장에 들어선 전차는 환희에 찬 시민들을 잔뜩 태우고 퍼레이드를 하듯 움직였지요. 시민들의 발이 되어 기쁜 날도 궂은날도 함께 달렸던 전차, 그리고 전차운전수를 추억해봅니다.

정리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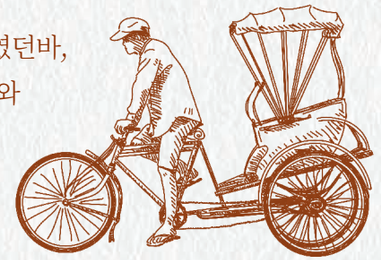
1899년
최초의 전차 도입과 함께 등장

1968년
전차 운행 중단 결정과 함께 사라짐

근대 최고의 인기 직업

"전차운전수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사위 삼았습니다." 전차 전성기를 기억하는 분들의 말씀(출처 <땡땡땡, 전차여 안녕!> 서울역사편찬원 저)에 따르면 당시 전차운전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차운전수와 운행을 보조, 관리하는 차장은 모두 정직원이었고 봉급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각이 잘 잡힌 정복과 모자도 한몫을 했고요. 전차운전수는 때로 혼잡한 전차 안에서 벌어지는 소매치기나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청원경찰 역할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문성과 품위를 갖춘 멋진 직업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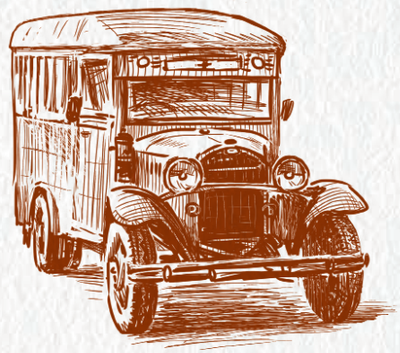
[취직전선에 대이상] 전차승무원(차장과 운전수) 모집광고를 하였던바, 모집정원 육십 명에 대하여 칠백칠십 명의 초기록적 응모가 들어와 십대일의 보기 드문 격렬한 경쟁을 일으키었다.
— <동아일보> 1937년 12월 9일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 전차

길 위의 궤도를 따라 전기로 달렸던 전차는 조선의 근대화를 바랐던 고종의 기획을 바탕으로 1899년 서울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최초의 노선은 동대문을 출발, 종로를 통과해 서대문까지 돌았습니다. 마차를 끄는 말도, 인력거를 끄는 사람도 없이 시내를 누비는 커다란 전차는 근대식 대중교통이 낯선 시민들에게 신기한 존재였습니다. 전차를 구경하기 위해 일부러 시내에 나온 시민들도 많았지요.

낯설기도 하거니와 승차비가 평균적인 한 끼 식사비를 웃돌았던 전차는 1930년대가 되어서야 전성기를 맞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데 그때까지도 이렇다 할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선이 확대되었고, 객차 수도 점점 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부산에도 전차가 도입됐습니다. 학생들도 할인을 받아 통학 시 이용할 정도로 전차는 시민들의 발이 돼주었습니다.



버스와 자동차에 밀려 박물관에 멈춰서다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다치고 깨지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전차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이후 본격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군용차를 개조하거나 커다란 드럼통을 본체 삼아 만든 자동차들이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버스도 등장했습니다. 정해진 궤도와 전선만 따라 움직이는 전차보다 구석구석 누비는 자동차와 버스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시내 한복판의 도로를 왕복 2차선씩 차지한 전차 궤도는 점점 골칫거리가 됐지요.

정부는 1960년대 후반 전차 운행 중단을 결정합니다. 1968년 서울과 부산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후, 남아있던 전차운전수들은 시영버스와 공영택시회사에 채용되며 제2의 직업을 찾았습니다. 전차는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시민을 위해 달렸던 전차운전사들의 노고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여름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여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태양이 없는 밤을 즐겨보는 거죠. 뭐 하고 놀지? 걱정은 잠시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긴 여름밤, 지루할 틈이 없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한대의 체력과 열정입니다.

정리 편집부

체험

그 시대를 걸어보자

강릉 문화재 야행

VS

수원 문화재 야행

문화재는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런 문화재를 좀 더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강릉 문화재 야행과 수원 문화재 야행인데요. 각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에서 곳곳을 누비며 역사를 알아가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어두워진 밤에 바라보는 문화재는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두 개의 야행 모두 8夜(8개의 밤의 테마) 체험이 준비되어 있어요. 강릉은 시내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수원은 문화재 야행은 수원화성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아름다운 밤빛에 비추는 색다른 성곽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릉과 수원에서 여행도 하고, 역사도 공부해보며 한여름 밤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강릉 문화재 야행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131번길 6(8/2~3, 9/27~28)

수원 문화재 야행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8/9~8/11)

축제

맥주가 빠지면 여름이 아니지!

송도맥주축제

VS

춘천 지구촌 비어로드 페스티벌

여름은 애주가들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자연스럽게 맥주 한잔이 생각나곤 하니까요. 맥주 한잔에 맛있는 안주, 다양한 공연이 어우러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송도맥주축제와 춘천 지구촌 비어로드 페스티벌입니다. 송도맥주축제에서는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와 신나는 EDM(Electronic Dance Music; 클럽, 페스티벌, 파티에서 사용되는 전자음악) 파티가 열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춘천 지구촌 비어로드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고 핫한 뮤지션들의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도맥주축제
송도달빛축제공원(8/23~8/31)

춘천 지구촌 비어로드 페스티벌
춘천의암공원일대(8/15~8/18)

도서

명작은 다르다

염마(艶魔)

VS

숨

책은 한장 한장 넘길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장르가 SF나 추리소설이라면 더욱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스토리가 더욱 탄탄해지기 때문이죠. 채만식의 <염마(艶魔)>는 한국 최초의 추리소설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탐정추리에 악녀와의 사랑까지 담겨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고의 SF에 수여되는 모든 상을 석권한 테드 창의 <숨>은 출간 자체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두 권의 책을 펼쳐봅시다. 모르는 사이에 밤을 지새우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직업인의 질병 ‘직업성 피부질환’

직업성 피부질환의 80%는 자극이나 알레르기에 의한 접촉피부염입니다. 주부를 포함한 직업을 가진 모든 노동자는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고, 이들 유해인자는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량과 농도에 따라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접촉피부염은 노동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 안연순(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주부, 연주자 등의 직업성 접촉피부염

가정주부가 계속된 가사업무로 물이나 세제를 많이 사용하면 습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주부습진’이라고 불리는 이것 역시 접촉피부염의 한 종류입니다. 물과 세제, 소독제를 이용하여 가사일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 즉, 가사도우미, 미화원, 조리사 등이 모두 접촉피부염 고위험 직종입니다.

생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등 전문 악기연주자에게도 접촉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피부질환은 ‘Fiddler’s neck’이라 불리는데 연주자의 신체 일부(얼굴 옆선, 목과 쇄골부위)와 악기가 접촉되는 부분이 마찰과 땀으로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발진, 색소침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단순 접촉뿐만 아니라 악기 금속부에 포함된 니켈 등 금속에 의한 알레르기 기전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병원 노동자인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 기사 등도 잦은 손씻기와 소독제 사용, 장갑 착용으로 손에 피부질환이 자주 발생하고,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즉, 직업성 접촉피부염은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에게서 경미한 자극부터 2차 병변 유발까지 다양한 중증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외작업자, 유기용제취급자 등의 치명적인 직업성 피부질환

최근에는 접촉피부염뿐만 아니라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암 등 치명적 직업성 피부질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암은 자외선이 강한 북유럽, 대양주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흔하지 않지만 최근 건설노동자, 조경사 등에서 발생한 피부암에 대해 직업성 논란이 자주 일고 있습니다. 야외작업이 많은 노동자라면 주의 깊게 봐야할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년간 간헐적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노출에 의한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생하여 몇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노출 1개월 이내에 발병하며 독성간염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트리클로로에틸렌 취급자에 대한 취급 전·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관리 등 관리대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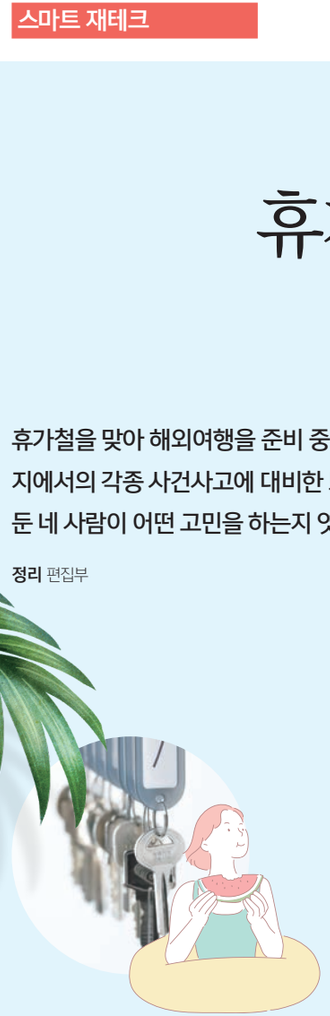
중증도에 따라 의학적·직업적 관리 필요

직업성 피부질환은 경미한 경우 방치·관찰부터 중증도에 따라 자가 치료 또는 병원 치료까지 의학적 관리방법이 다양합니다. 위생적 작업환경 유지, 보호구 착용 등 직업적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은 보호구 착용으로도 관리되지 않아 전직이나 이직 등의 극단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도가 큰 접촉피부염, 특히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거나,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접촉을 막기 위한 보호구 착용이 중요한데 보호구를 잘못 선택할 경우 보호구에 의한 접촉피부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휴가철 여행자보험 제대로 들기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이 많은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 편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여행지에서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보험도 보험 나름. 아래에서 해외여행을 앞둔 네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엿보면서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여행자보험을 찾아보세요.

정리 편집부



대리: 친구야 기억하니? 지난 여행에서 우리 숙소 열쇠 잃어버렸던 것….

A 대리에게 배상책임 특약을 추천합니다. 배상책임 특약은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배상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합니다. 음료를 들고 길을 걷다 실수로 타인과 부딪혀 상태에게 세탁비를 물어줘야 할 경우, 또는 A 대리 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것이라도 본인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는 물품(렌트카 등)은 보상받기 어려운데요, 예외로 호텔 등 숙소의 물품을 고장 또는 분실해 배상청구서를 받은 경우는 보상 가능합니다.

사원: 지난 여행의 장염 악몽, 설마 이번에도?

질병의료비 특약을 고려해보세요. 해외에서 갑작스럽게 몸에 탈이 나거나, 다쳐서 병원에 간 경우, 또는 국내에 돌아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종류에 따라 보장 범위도 다양합니다. 식중독이나 배탈에 걸릴 경우, 의료비가 비싼 지역에서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될 경우 등에 대비한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 특약 보장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래간만에 필드에 나가는데 골프보험 들어? 말아?

레저 활동이 여행 코스에 포함돼 있다면 관련 보험을 고려해보세요. 골프보험은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와 용품의 도난이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 또한 홀인원 시 비용 부담도 줄여줍니다. 홀인원이 나오면 사례금과 기념 라운드를 비롯해 한턱 쏘는 게 관례인데요, 골프보험은 이 같은 비용부담을 줄여주지요. 골프 외에도 낚시, 스키 종목의 레저보험이 있습니다. 단, 스킨스쿠버와 행글라이딩 같은 레저스포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장: 보름 전에 산 내 최신형 스마트폰, 떨어뜨리면 어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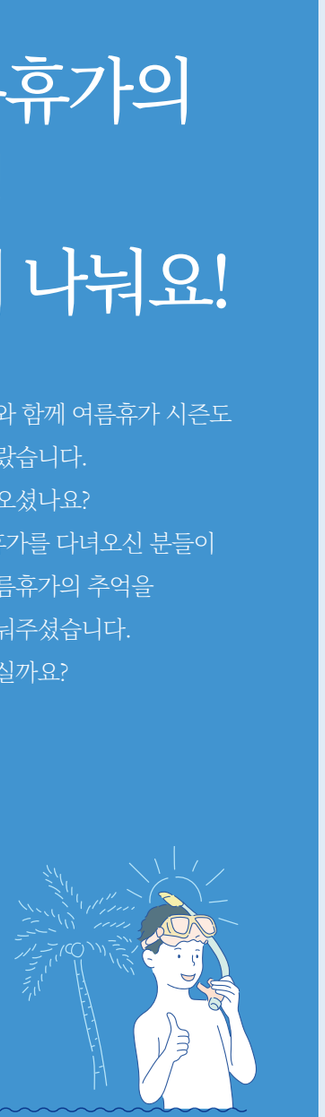
해외여행 가장 빈번한 사고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휴대품 관련 사고입니다. 특히나 유명 관광지에서 휴대용 스마트기기를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죠.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떨어뜨려서 액정화면이 깨졌을 때, 여행보험 휴대품 관련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단순 분실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은 많지 않고 도난당했을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신고서(Police Report)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상 범위와 방법을 꼭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여행자보험 가입

-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누리집(www.e-insmarket.or.kr)에서 다양한 보험 상품과 보장내용, 가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국 직전, 공항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보장범위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보상 청구 시 여행지 현지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여름휴가의 추억 함께 나눠요!

뜨거운 날씨와 함께 여름휴가 시즌도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여기, 먼저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즐거웠던 여름휴가의 추억을
사진으로 나눠주셨습니다.
함께 감상하실까요?



임다솔 님

#아빠와 딸 #부녀의 등산 #시원한 바람 #푸릇푸릇 나무

김화영 님

#휴가는 역시 계곡 #수박튜브 #신선놀음 #힐링타임 #집에 안 갈래

김유미 님

#우리가족 여름이야기 #푸른 하늘 푸른 바다 #주문진
#한 폭의 그림

이성옥 님

#최고의 피서지 #도서관 #시원한 음료 한 잔 #책 삼매경
#가까운 바캉스

장미선 님

#안면도 여름휴가 #친정식구 소집 #남편의 바비큐 실력
#즐거운 야외 캠프

9월호 주제

이것 없이는 못 살아! 사무실 내 '나의 최고 애장품'

사무실에 있는 내내 나와 꼭 붙어 있는 슬리퍼, 텀블러, 수시로 바라보는 나의 손거울, 아픈 허리를 든든히 받쳐주는 곰돌이 쿠션 등 사무실에 오면 활용률 100%를 자랑하는 '최애장품'을 공개해주세요.

참여 방법

1. 8월호에서 9월호 내일스타그램 주제를 확인한다.
2. 주제에 맞는 장면을 발견하면 찰칵 사진을 찍는다.
3. 촬영한 사진을 아래 이메일로 짧은 사연과 함께 전송한다. moel2019@naver.com
4. 참여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이메일에 반드시 기재한다.

* 멋진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5명을 선발해 다음호 지면에 공개하고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케이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 문의전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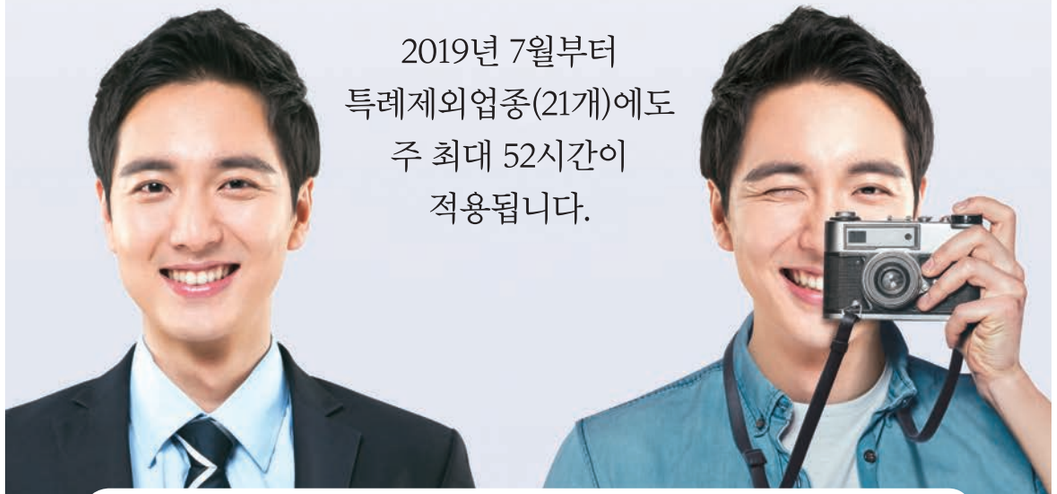
가벼워진 출근길
즐거워라

이른 저녁, 딸의 재롱
귀여워라

퇴근 후 미래를 위한 시간
흥미로워라

다시 찾은 저녁이 있는 삶
반가워라

워라밸 덕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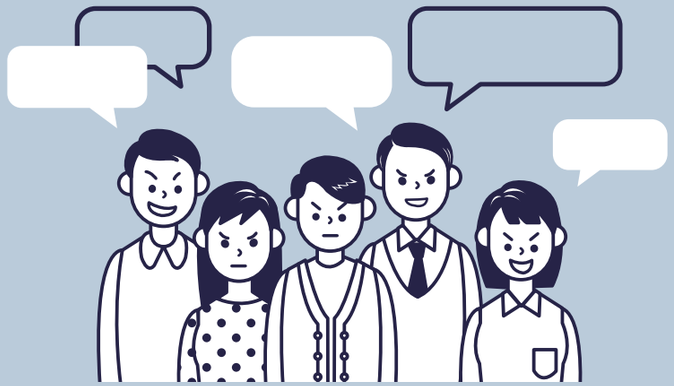


2019년 7월부터
특례제외업종(21개)에도
주 최대 52시간이
적용됩니다.

노동시간, **1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가능!
주 52시간 = 주 40시간 + 휴일, 연장근로 포함 12시간
-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18.7.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19.7.1)
- 50~299인 : '20.1.1
- 5~49인: '21.7.1

특례제외업종 21개

보관 및 창고업(521),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소매업(47),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우편업(611), 전기통신업(612), 교육서비스업(85), 연구개발업(7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광고업(713),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742),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사회복지서비스업(87),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 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2자리) 또는 소분류(3자리) 코드



고용노동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월 16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교육자료 및 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Quiz

7월호 퀴즈 정답 고용허가제

7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김미경(인천시 동구)
김현진(경기도 용인시)
박성희(서울시 강북구)
박인복(경북 영천시)
이한주(서울시 중랑구)
이영준(경기도 군포시)
임솔(서울시 강남구)
전경욱(충북 충주시)
조한석(경기도 의정부시)
최태환(경기도 안산시)

월간 <내일> 8월호 퀴즈

노동자와 이용자가 서로 협의한 노동 시간과 휴게 시간, 보장하는 휴일,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임금과 조건 등이 들어간 이 문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1. □□□□□(한글로 다섯 글자)
힌트 2. 지금 바로 11페이지를 열어보세요.

퀴즈 정답을 엽서에 적어 매월 20일까지 <내일>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독자와 함께 만드는 월간 <내일>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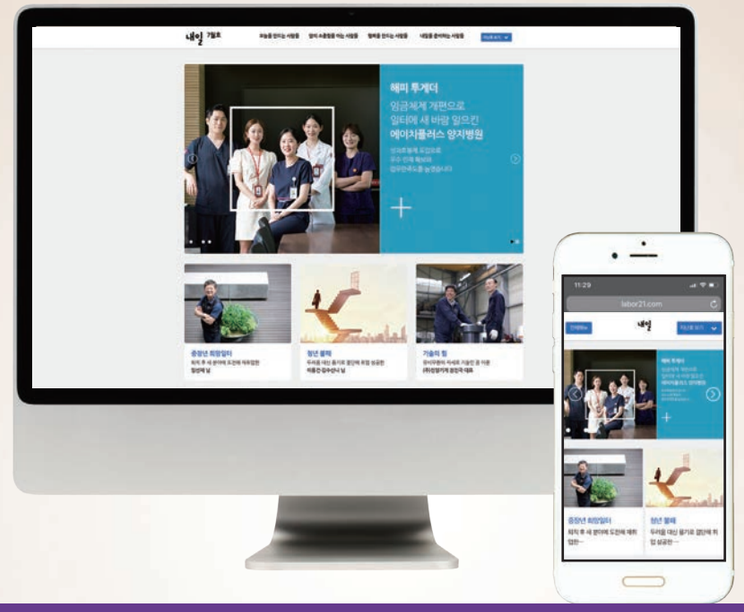
월간 <내일>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알고 싶은 정책, 읽고 좋았던 기사, 또는 개선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 등 자유로운 의견을 엽서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월간 <내일>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새로운 독자를 환영합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월간 <내일>을 우연히 만나셨다면, 원하시는 주소로 매월 편하게 받아보세요. 아래 1번과 2번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구독 신청은 다음 달부터 반영돼 매달 우편으로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엽서에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2. 웹진(www.labor21.com)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세요.
* 주소를 적어 주실 때, 빌라 또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모두 적어주세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www.labor21.com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검색창에 '월간 내일'을 입력하거나 'www.labor21.com'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월간 내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해서 모바일 웹진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